
테크노바디의 탈신체화와 재신체화에 대한 테크노페미니즘 분석*

- 영화 <메트로폴리스>와 <엑스마키나>를 중심으로 -

이수안 (이화여자대학교, 부교수)

〈목 차〉

- I. 포스트휴먼과 테크노페미니즘
- II. 테크노바디의 출현과 몸의 물질성
- III. 테크노바디의 탈신체화와 재신체화
 - 1. 헬과 마리아 - 여성 형상 기계인간(Maschinen-Mensch)의 탈신체화
 - 2. 에이바 - 기계 신으로부터 여성 인간으로의 재형상화
 - 3. 진화하는 개념으로서 '몸의 물질성'이 관통하는 테크노바디 여성주체
 - 4. 테크노바디에 부여되는 포스트젠더의 재해석 가능성
- IV. 맺는 글: 몸의 물질성에 대한 테크노페미니즘적 의미

국문초록

포스트휴먼이 탈육체화된 가상의 몸을 전제로 한다고 했을 때 테크노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몸을 성찰하는데 중심 개념은 생물학적 조건을 초월하는 포스트휴먼적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 B8069796).

테크노바디가 함축하는 몸의 물질성과 젠더정체성이 될 것이다. 이 논문은 영화 〈메트로폴리스 Metropolis〉와 〈엑스마키나 Ex Machina〉를 중심으로 탈신체화된 기계인간과 정보로서의 몸인 테크노바디가 몸의 재형상화, 나아가 재신체화로 재현되는 과정에서의 몸의 물질성과 젠더정체성 논의, 특히 포스트젠더를 테크노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모더니즘 시대에 제작된 〈메트로폴리스〉에서 기계인간 마리아는 인간과 기계의 접합을 통해 탈신체화와 재신체화를 거치면서 소멸되어야 할 타자적 존재로 재현되었다면, 포스트휴머니즘의 맥락에서 해석가능한 〈엑스마키나〉의 에이바는 인간 형상으로 재신체화되면서 몸의 물질성의 상징적 표식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주체적 존재가 된다. 따라서 인간과 기계의 혼종으로서 테크노바디의 몸의 물질성은 육체유물론에서의 유기체적 몸이 아닌 유동적 몸의 개념에 따라 재정립하는 테크노페미니즘의 시각에서 새롭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

키워드: 테크노페미니즘, 몸의 물질성, 테크노바디, 탈신체화, 재신체화

I. 포스트휴먼과 테크노페미니즘

‘인간(human)’의 존재조건은 무엇인가? 이 무한히 영역을 넓히면서 전개될 수 있는 질문은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테크노사이언스의 시대가 펼쳐지면서 인간의 미래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환경이 전개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매우 복잡하고 중층적인 논의들과 연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우선 전통적인 인간주의, 즉 인본주의(humanism)에서 규정되는 인간과 포스트휴먼을 구분하는 담론은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 논의가 시작되면서 ‘인간’에 대한 개념 정의와 인간의 존재조건이 가장 전면에 드러나는 주요 논제로 제기되었다. 즉 인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철학적, 사회학적 범주에서부터 인간의 외양과 형태에 이르기까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스펙트럼은 이제 ‘테크노휴먼’, 그리고 ‘포스트휴먼’으로까지 무한히 확장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트랜스휴머니즘의 기본 전제가 지금까지의 인간의 신체적 제약과 한계를 넘어서는 인간향상(human enhancement)에 있었다면 그 조건은 늙고 병들고 결국 죽는 생물학적 조건의 향상 내지는 전면 수정일 것이다.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

럼을 포괄하고 좀더 성숙하고 학술적인 트랜스휴머니즘을 모색하기 위해 1998년 세계 트랜스휴머니스트 협회(WTA: World Transhumanist Association)를 설립한 옥스퍼드 대학교 인류미래연구소(Future of Humanity Institute) 소장인 닉 보스트롬(Nick Bostrom)과 영국 철학자 데이비드 피어스(David Pearce)를 비롯한 학자들은 「트랜스휴머니스트 선언문 The Transhumanist Declaration」을 통해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의 세계관에 대한 표준적인 정의를 내린 바 있다.¹ 이렇게 ‘포스트휴먼’으로 진화하는 과정의 과도기적 인간을 ‘트랜스휴먼(transhuman)’이라고 부르면서 인간의 진화를 스스로 디자인하겠다고 선언하는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의 주장이 가리키는 트랜스휴먼 이후의 인간에 대한 미래적 전망은 결국 생물학적 조건을 초월할 수 있는 ‘포스트휴먼’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테크노페미니즘의 도래를 전망하는 주디 와이즈먼(Judy Wajcman)에 의하면, 테크노사이언스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전례가 없는 방식으로 인체를 리모델링하고 개인과 집단을 유형화하고 자연을 상품화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생의학 기술들이 인간적이라는 것의 의미를 바꾸고 있으며, 심지어 자아에 대한 인식까지도 바꾸어놓고 있다.² 이런 변화들은 우리에게 기술 혁신 과정과 일상생활의 실천과 문화에 이들 혁신이 끼치는 영향 모두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더욱이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제고는 필연적으로 젠더와 관련된 다층적인 인식과 연결된다.

그렇다면 논의의 핵심이 되는 테크노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젠더불평등이 고착화될 것인지, 아니면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선언문」이 전망하듯이 과학기술이 여성에게 유토피아적 미래를 열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은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켜왔다. 『테크노페미니즘』이라는 저서를 통해 테크노페미니즘을 널리 확산시킨 와이즈먼은 정작 이 개념을 두

1. 이경란, 「[특집] 포스트휴먼 시대의 포스트휴먼 담론들-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 『문화동네』 여름호(87호), 2016, 374쪽.

2. 주디 와이즈먼, 『테크노페미니즘』, 박진희·이현숙 옮김, 궁리, 2009, 14쪽.

렷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다. 다만 와이즈먼의 논의에 의거해서³ 테크노페미니즘의 정의를 유추해본다면 테크노페미니즘이란 '테크노사이언스를 현실적 기반으로 한, 기술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에서 특히 사이보그페미니즘의 통찰력 위에서 수행하는 페미니스트적 접근 방식과 인식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

테크노사이언스 시대의 젠더 논의는 테크노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내다보는 인류의 미래 전망과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기존의 페미니즘에서 집중하던 몸 논의를 보다 심도있게 다룰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왜냐하면 트랜스 휴머니즘이 표방하는 인간향상은 기본적으로 의학적 진보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생식 기술의 차원에 이르면 지금의 정보과학기술과 테크노사이언스의 등장은 진보라고만 낙관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 또한 동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공자궁이나 대리모의 윤리적 측면을 생각해본다면 지금의 정보과학기술과 테크노사이언스의 등장이 막연하게 진보만을 상징하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테크노사이언스와 사회 사이의 연관이 보다 더 조밀하게 탐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IT의 발달이 여성의 미래에 유토피아적 전망을 갖게 하는지 아니면 디스토피아적 전망을 갖게 하는지를 놓고 페미니즘 진영 내에서 벌여온 논쟁은 자동인형 장치, 안드로이드 그리고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가득 차 있는 미래 시나리오 속에서 테크노페미니즘의 필연적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⁴

주지하다시피 헤일즈는 자신의 저서 제목에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라고 과거형 동사를 씌으로써 우리가 이미 포스트휴먼이 되었다고 단언하고 있다. 인간 존재조건의 가장 기본인 몸을 논의의 중심에 놓고 볼 때 헤일즈⁵는 코드화된 가상의 몸(virtual body)을 상정함으로써 자연으로서의 인간의 몸과, 기계와 결합된 인간의 몸으로 구분하는 것을 넘어선다는 점을 들어 우리가 이미 포스트휴먼이 되고 있다는 가정을 명시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그렇다면 포스트휴먼 신체가 결국 탈육체화된 가상의 몸을 전제로 한다고 했

3. 위의 책, 167쪽.

4. 이수안, 『테크노 문화풍경과 호모 센수스』, 북코리아, 2018, 161쪽 참조.

5. 캐서린 헤일즈,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 허진 옮김, 플래넷, 2013.

을 때 테크노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몸을 성찰하는데 가장 중요한 명제는 생물학적 조건을 초월하는 포스트휴먼적 테크노바디가 함축하고 있는 몸의 물질성(corporeality)과 그 몸을 통해 형성되는 젠더정체성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로봇같이 완전히 인간의 유기체적 구성이 배제된, ‘탈신체화된 테크노바디의 몸의 물질성’이란 과연 그 의미의 완결성이 성립하는 개념인가? 또한 이때 이른바 ‘포스트젠더’로 개념화되는 젠더정체성의 유동성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 것인가? 이 질문들에 답하려면 육체페미니즘으로부터 시작된 몸의 물질성 이론이 테크노페미니즘에서 테크노바디의 등장과 더불어 어떻게 개념적으로 전이하면서 발전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몸에 부여된 성별을 기본적 요소로 하여 부여되던 젠더정체성과 젠더불평등이 사이보그 등 탈육체화된 존재의 일상화가 이루어지는 미래사회에서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해볼 수도 있다. 이로 인해 도래할 것으로 기대하는 ‘포스트젠더(post-gender)’⁶의 시대에도 과연 포스트젠더 개념은 인공지능 로봇 등이 개발되는 본격적인 포스트휴먼의 도래 과정에서 본래적 의미, 즉 ‘젠더를 초월하는’, ‘젠더를 넘어서는’ 차원을 유지할 것인가 짚어봐야할 것이다.

이 논문은 탈신체화(dis-embodiment)된 정보로서의 몸인 테크노바디가 다시 기존의 젠더적 통념을 그대로 로봇에 입히는 과정의 몸의 재형상화(refiguring), 나아가 재신체화(re-embodiment)로 재현된다고 할 때 미래사회에서 완벽한 포스트젠더가 구현될 가능성은 과연 존재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출발한다. 실제로 돌봄노동을 전제로 하는 감성로봇이나 성적 욕구를 해소해주려는 상업적 목적으로 개발된 소위 ‘섹시봇’ 등 상용화되고 있는 로봇이 기존의 성별분업 관념이나 성별 역할분담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미루어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는 미래사회에서 젠더불평등이 완전히 해소되는 포스트젠더 시대의 도래에 대해 전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해석이 필요하다.

6. George Dvorsky·James Hughes, “Postgenderism: Beyond the Gender Binary”, IEET White Paper 03, Mar. 20, 2008 참조.

II. 테크노바디의 출현과 몸의 물질성

트랜스휴머니즘 내지 포스트휴머니즘 이론에서 최근 들어 매우 논쟁적인 양태로 '인간' 이후의 '인간'에 대해 예측하는 가운데 그 정점에 '변형된 인간의 몸', '가공된 인간의 몸', '인간과 기계의 혼종으로서 형상', 즉 테크노바디가 자리하고 있다. 테크노바디는 여러 단계가 있겠지만 '인간'의 단계로부터 '인간 이후'의 인간형상을 한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기타 여러 형태의 인간을 포방하는 기계들까지로 범주를 확대해보면 지금 현단계로서는 상상력을 동원하여 추측해볼 수 있는 테크노바디까지 매우 다양한 테크노바디의 출현을 예측해볼 수 있다.

테크노페미니즘 관점에서 몸의 물질성을 담론화하기 위해서는 테크노바디에 대한 이론적 정립이 필요하다. 이는 몸의 물질성을 초월하여 포스트휴먼 바디에 대해 아예 코드화된 정보로서의 신체로 규정하는 헤일즈의 논의를 좀더 구체화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자면 완전한 포스트휴먼의 범주로의 이행 이전 단계로서 테크노바디가 갖는 테크노페미니즘적 함의는 몸의 물질성과 코드화되고 탈육화된 신체 사이의 다양한 층위의 논의를 심화하는 과정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재증명인 몸이 테크노휴먼의 몸으로 변환되는 과정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 특히 몸의 물질성이 내포하고 있는 섹슈얼리티와 젠더정체성의 밀접한 상호연관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페미니즘에서 테크노페미니즘으로 이행하는 이론의 맥락에서 몸의 의미가 근본적으로 변화했음은, 주체성을 몸이라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기반 위에 세우려던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의 육체유물론을 상기하면 자명해진다. 주지하다시피 몸의 물질성을 출발점으로 하는 페미니스트 이론은 바렛(Michell Barrett)을 비롯하여 이리가라이(Luce Irigaray)⁷, 그리고 그로츠(Elizabeth Grosz)⁸로 이어져 왔다. 이들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은 육체유물론을 통해 체현

7. Luce Irigaray, *Speculum of the Other Woman*, Gillian G. Gill(trans.), Cornell University Press, 1985.

8. Elizabeth Grosz, *Volatile Bodies: Toward a Corporeal Feminism*, Indiana University Press, 1994.

(embodiment)을 중요한 키워드로 삼으면서 근대 주체가 부정했던 육체를 적극적으로 다시 사고하고 인정하는 작업을 육체 페미니즘의 출발점으로 삼았던 것이다.⁹

이리가라이는 재현인 육체를 통합적으로 사고하게 하는 육체유물론의 인식 틀을 구성하는 유물론이라는 용어의 뿌리가 어머니(mater)이고 물질적인 것(the material)은 주체의 기원의 영역이자 여성 주체의 특수성을 표현하는 심급이라고 강조함으로써 몸의 외관상 성적 차이가 주체성 형성에 매우 중요한 준거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 바 있다.¹⁰ 그렇다면 과연 테크노바디의 경우에도 몸의 외관을 결정하는 성적 차이를 기반으로 기계인간의 외피가 여성으로 만들어졌을 때 다시 그 성적 차이가 포스트휴먼적 주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과연 A.I.인 로봇에게서도 몸의 물질성이 갖는 의미가 있을 것인가?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더불어 등장한 가상의 시대에 몸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매우 복잡한 논의를 동반한다.¹¹ 지금의 테크놀로지 발달단계로 볼 때 이미 물질적인 몸(corporeal body)을 넘어서서 테크노바디의 등장과 더불어 탈신체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보 과학기술이 과연 여성에게 미래 사회의 해방적 전망을 제공하고 있는가, 혹은 여전히 전통적인 젠더 재생산에 연동된 비관적 예측을 떨칠 수 없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테크노페미니즘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의 출발점이다.

와이즈먼은 테크노페미니즘 관점의 기술 분석의 필요성에 대해, 기술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발전해왔는데 이러한 기술의 사회적 형성과정에서 젠더관계와 젠더정체성이 어떻게 연관되어 형성되어 왔는지 살펴보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저서인 『테크노페미니즘』에서 역설하고 있다. IT의 발달로 인하여 인공지능을 탑재한 인간형상의 존재가 다양하게 출현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던 사고능력과 욕망, 유기체와의 관계로 유비되는 생명의 개념과

9. 이수안, 앞의 책, 156쪽.

10. 이수자, 『후기근대의 페미니즘 담론』, 여이연, 2004, 155쪽.

11. Rosanne A. Stone, *The War of Desire and Technology at the Class of the Mechanical Age*, MIT Press, 1998, p.17.

섹슈얼리티 등은 테크노페미니즘의 이론적 논의들이 그동안 제기해온 여러 가지 인간 존재와 젠더 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몸이 섹슈얼리티와 젠더정체성을 구축하는 문화적 구성체로서, 그리고 실존의 토대로서 몸의 물질성을 기반으로 하여 그 중요성을 부여받아왔다는 점은 육체유물론적 페미니즘 이론에서 핵심적 논점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이리기가라 이를 중심으로 한 프랑스 정신분석학적 페미니즘 이론가들이 주목하는 여성의 주체성 논의의 중심에는 여성의 몸이 갖는 문화적 의미에 대한 재정의, 섹슈얼리티와 욕망에 대한 여성의 관점에서의 의미부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런데 이렇게 여성의 주체성 형성의 핵심으로 작용하는 몸의 물질성은 테크노사이언스 시대에 접어들어 디지털 기술의 도입과 더불어 탈신체화가 연동되면서 필연적으로 희석되리라고 예측되어온 것¹²도 테크노페미니즘의 관점에서 테크노바디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론적 논점이 아닐 수 없다.

III. 테크노바디의 탈신체화와 재신체화

이 논문에서는 테크노바디와 포스트젠더, 그리고 몸의 물질성과 육체유물론 등 이론적 가정들을 바탕으로 하여 영화적 상상력이 만들어낸 테크노바디의 재현을 분석해보면서 테크노바디의 몸의 물질성이 과연 성립 가능한 개념인가, 테크노페미니즘의 관점에서 테크노바디의 포스트젠더 전망은 가능한가 등의 이론적 명제의 타당성을 타진해보고자 한다. 특히 모더니즘 시대의 영화 속 기계인간과 포스트휴머니즘이 대두되고 있는 테크노사이언스 시대의 테크노바디의 탈신체화와 재신체화의 과정을 비교하면서 이에 내포된 기술과 젠더의 관계에 대한 페미니스트 관점, 즉 테크노페미니즘적 관점의 해석을 시도해보는 데 이 분석의 의미가 있다.

기계인간(Maschinen-Mensch)으로 영상 속에 등장했던 〈메트로폴리스 Metropolis〉(프리즈 랑, 1927)의 헬과 마리아가 기계와 인간의 접합이라는 과정

12. 이수안, 「사이보그와 몸의 물질성: 가상현실 속 체현의 양가적 개념들」, 『영미문화페미니즘』 제23권 2호, 2015, 119쪽.

을 거치면서 탈신체화와 재신체화를 보여준 점은 지금의 테크노사이언스 시대에 되짚어 보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 영화가 나온 지 거의 백년이 되어가는 지금의 시각에서 돌이켜봐도 당시로서는 놀랄만큼 앞서간 기계인간의 설정과 제작 장면 등의 구도가 영화 <엑스마키나 Ex Machina>(알렉스 가랜드, 2015)의 인공지능 로봇이 여성의 몸으로 재형상화되는 방식으로 재현되면서 테크노페미니즘 논의를 관통하여 핵심적 논제를 교차적으로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 두 영화 속 기계인간들의 존재론이 시대를 가로지르면서 테크노바디와 몸의 물질성, 탈신체화와 재신체화로부터 비롯되는 포스트젠더 논의를 테크노페미니즘의 영역으로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육체유물론에서 이론화한 몸의 물질성이 사라진 비유기체적 테크노바디가 급기야 아예 정보로서만 존재하는 OS '사만다(영화 <그녀 Her>의 캐릭터)로 재현된다고 한다면 여성의 몸으로 형상화되는 인공지능 로봇 '에이바(Ava-영화 <엑스마키나>의 캐릭터)로 재신체화되는 방식의 순환구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유기체적 신체로의 회귀가 아니므로 엄밀하게 말하자면 재신체화라고 할 수 없기는 하나 인간의 형상, 즉 여성의 몸 형태와 몸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재현하므로 외형상 신체의 재형상화 내지 재신체화라고 개념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포착할 수 있는 몸의 물질성이 어떻게 테크노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여성 주체성의 토대로서 재개념화할 수 있는지, 미래 사회의 테크노바디에서 젠더정체성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와이즈먼이 제시한 웨트웨어(wet wear)로 진화하는 가운데 포스트젠더를 자동 완결할 것인지 등의 논제에 영화 속 캐릭터 해석이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지 가늠해보고자 한다.

모라벡(Moravec)은 로봇과 인간 지능의 연구에서 인간의 실체가 본질적으로 신체화된 행동이 아니라 정보 패턴이라고 주장하면서¹³ 인간의 의식을 컴퓨터에 다운로드함으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는 기계가 인간 의식의 저장소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모든 실용적 목적에 대해서 기계도 인

13. Hans P. Moravec, *Mind Children: The Future of Robot and Human Intelligence*, Harvard University, 1988, pp. 109~110.

간이 될 수 있으며 역으로 인간도 사이보그가 될 수 있다¹⁴는 논리와 상통한다.

최근 들어 신체의 말소화를 기본적인 전제로 하면서 역설적으로 물질적인(corporeal) 몸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는 영상 재현물들, 예를 들면 〈그녀 Her〉(2013)나 〈엑스마키나 Ex Machina〉같은 영화가 등장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테크노바디의 영상적 재현은 이미 1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메트로폴리스〉에서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때의 기계인간의 재현은 〈엑스마키나〉의 인공지능 로봇과 탈신체화와 젠더적 재형상화의 측면에서 놀랍게도 유사한 구도를 보여주고 있다.

1. 헬과 마리아 - 여성 형상 기계인간(Maschinen-Mensch)의 탈신체화

영화 〈메트로폴리스〉는 1927년 프리츠 랑(Fritz Lang) 감독이 독일 영화사 UFA에서 제작한 무성 영화로 SF 영화의 시초 중 하나로 꼽히며, 미래 도시와 로봇, 노동과 사회에 대한 비전을 보여준 것으로 유명하다. 2001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처음으로 등재된 영상물로서 제2차 세계대전 이전 대표적인 독일 표현주의 영화라고 할 수 있다.

미래 도시 메트로폴리스는 두 개의 세계로 나뉘어 있다. 하나는 행복하고 안락한 부르주아들의 지상낙원이고, 또 하나는 온통 기계로 둘러싸인 노동자들의 지하세계이다. 지상의 가진 자들은 지하의 빼앗긴 자들의 노동의 대가로 천국의 삶을 영유한다. 그러던 어느 날, 지상세계를 움직이는 자본가의 아들 프레더가 우연히 비밀의 문을 통해 지하세계로 내려가 천사 같은 소녀 마리아(Maria)를 만나게 된다. 그녀는 노동자들의 유일한 위로와 구원의 상징으로 성녀와도 같은 존재이다. 그러나 이미 헬(Hel)이라는 기계인간을 만든 과학자 로트방(Rotwang)이 프레데르젠의 사주로 마리아를 납치한 뒤 헬의 기계인간을 마리아에 주입시켜 마리아와 외양이 똑같이 생긴 기계인간 마리아를 지하세계로 내려보낸다. 가짜 마리아는 노동자들을 선동하고, 지하세계의 노동자들은 이에 따라 계급투쟁을 향해 전진하는데 끝에 가서 가짜 마리아는 화형을 당하

14. 캐서린 헤일즈, 앞의 책, 14쪽.

고 만다.

이 영화는 테크놀로지에 대한 상반된 두 가지 입장의 대립을 해소하려 한 영화로 평가받는데¹⁵ 그 두 입장이란 첫째, 테크놀로지의 억압적이고 파괴적인 잠재력을 강조하는 표현주의적 입장이고, 두 번째 입장은 기술에 의한 진보 및 사회적 엔지니어링에 대한 무조건적인 확신을 특징으로 하는 신즉물주의(Neue Sachlichkeit)의 테크놀로지 숭배가 그것이다. 신즉물주의는 1920년대 독일에서 주관적인 표현주의에 대한 격심한 반발에서 발생한 경향으로 객관적인 합목적 성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경향이다.

이 영화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표현주의적 입장에서 재현되는 여성 기계인간의 등장이다. 여기서 잠시 포스트휴머니즘에 관한 논의에서 다루어지는 인간 형상의 기계, 즉 로봇을 살펴보기로 한다. 포스트휴머니즘 논의에서 가장 비중있게 다루어지는 것은 바로 기계라는 새로운 존재론적 범주이다. 울프에 의하면, '기계는 인간의 신체와 정신을 보완하거나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공물'¹⁶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창익은 "기계가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와 인간을 보완할 때, 인간은 서서히 기계가 된다. 이와 다르게 기계가 인간의 몸 밖에서 인간을 대체할 때, 기계는 서서히 인간이 된다"¹⁷고 풀이하면서 "로봇은 인간의 많은 신체적 기능을 대체할 수 있고, 인공지능은 인간의 많은 정신적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계는 인간의 신체와 정신 모두와 교환될 수 있다"¹⁸고 역설한다. 포스트휴머니즘에서 이렇게 기계와 인간이 상호 호환된다고 보고 있다면 모더니즘의 시대적 관점에서는 과연 어떠한 관계로 묘사되었을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의 실마리를 <메트로폴리스>로 돌아가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모더니즘에서 기술적 인공물과 기계 '타자'는 젠더화되고 성애화되며, 기술

15. R. L. 러츠키, 『하이테크네』, 김상민·윤원화 외 옮김, 시공아트, 2004, 82쪽.

16. Cary Wolfe, *What Is Posthumanism?*,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0, XXV.

17. 이창익, 「인간이 된 기계와 기계가 된 신: 종교, 인공지능, 포스트휴머니즘」, 『종교문화비평』31, 2017, 212쪽.

18. 위의 글, 213쪽.

이 주도하는 미래의 상장이 된다¹⁹는 설명은 특히 프리츠 랑의 <메트로폴리스>에서 마리아의 복제인 기계인간 마리아를 예시로 할 때 잘 이해될 수 있다. 브라이도티에 의하면, 이 영화는 미래주의 소설인 『미래의 이브(L'Eve future)』(Villiers de l'Isle-Adam)²⁰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 소설은 산업혁명의 기계적 신체-타자를 강렬한 욕망의 대상으로 그린다. 살이 금속이 되어 자분을 성장시키는 연료가 되고, 진보는 기관차들이 성공적으로 서양 역사의 기차를 몰고 끌 없이 터널들을 통과하는 환상적 장면으로 시각화된다.

브라이도티의 해석에 의하면 기계-요부이면서 기도하는 사마귀이고, 처녀-어머니이면서 임신한 자살폭탄범, 레르비에의 <비인간 Inhuman>의 등장인물 클레어와 랑의 <메트로폴리스>의 마리아는 20세기가 당대의 산업기술과 기계와 맺은 고도로 성차화되고 젠더화된 관계를 표현한다. 하지만 이 시각은 인간을 세계 진화의 중심에 위치시키는 의인화의 틀 안에 담겨있을 뿐만 아니라, 곧바로 새로운 제후로 재정의하기 위해서일지라도, 인간과 기술을 구별한다. 이로써 다면적인 비인간 세계가 생산된다²¹고 보고 있다.

<메트로폴리스>에서 마리아는 이중적 의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미지로 등장한다. 로트방이 주조한 기계인간 헬을 마리아의 신체에 주입시켜 노동자들을 보살피던 성녀 마리아의 이미지에서 완전히 전도된 이미지로서 노동자들을 교란하는 악녀 마리아, 즉 기계-요부로 변화하게 만든다. 이를 러츠키는 “가짜 마리아는 섹슈얼리티와 테크놀로지의 응축을 재현한다. 가짜 마리아의 악마적인 또는 언캐니한 생명은 페티시화 과정의 산물이다. 필연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성적, 테크놀로지적 대상은 이 과정에서 유기적 전체를 대체하면서 그 자리를 차지한다”²²고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원래는 금속 갑옷을 입은 것 같은 형상의 기계인간 헬의 금속 신체에 마리아라는 완전히 유기체적 인간 신체가 주입되면서 성적 욕망과

19. 로지 브라이도티, 『포스트휴먼』, 이경란 옮김, 아카넷, 2015, 138쪽.

20. 빌리에르 필아당이 1877년부터 관련 주제로 여러 신문이나 잡지에 연재해오던 것들을 모아 1886년에 발행한 장편소설.

21. 로지 브라이도티, 앞의 책, 138쪽.

22. R.L. 러츠키, 앞의 책, 88쪽.

유혹의 섹슈얼리티를 표방하는 존재로 재현됨을 주목하게 한다. 그 장면에서 탈신체화된 금속 기계인간이 인간신체로 재형상화하는 과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피부와 혈관, 마지막으로 심장을 표현함으로써 재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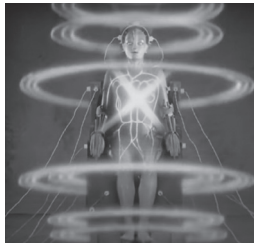
〈사진 1〉



〈사진 2〉



〈사진 3〉



〈사진 4〉



〈사진 5〉

〈사진 1〉부터 〈사진 5〉까지가 금속으로 된 기계인간 헬이 인간형상의 로봇가짜 마리아로 변신하는 단계적 과정이다. 로트방의 연인이었으나 프레데르젠에게 겁탈당하고 프레더를 임신하여 출산과정에서 숨진 헬을 로트방이 금속 기계인간으로 만들어놓고 있었는데 이를 안 프레데르젠이 헬을 이용하여 노동자를 분열시킬 기계인간 마리아로 변신시켜줄 것을 요청하자 이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사진 4〉의 헬이 인간 마리아와 연결된 전극을 통해 마리아의 피로 혈관이 생성되고, 금속 표피가 인간의 피부로 변화하며 나중에는 심장이 생기고 그 후 〈사진 5〉의 완벽한 인간형상의 마리아가 덧씌워지는 전개이다.

탈신체화된 금속 기계인간이 인간 신체로 재형상화하면서 그 과정에서 유기체적 특성이 명시적으로 표현됨으로써 몸의 물질성을 획득한 여성의 몸으로

전화한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여성의 몸으로 형상화한 가짜 마리아는 외모가 판박이인 진짜 마리아와는 성격과 인성에 있어서 완전히 반대의 특성을 가진 여성으로 묘사된다. 즉 요망하고 성적인 유혹을 온몸으로 표현하여 노동자들을 선동하는 마녀의 모습으로 이미지화하면서 나중에는 결국 마녀재판의 마녀처럼 화형당하는 장면으로 끝을 맺으로써 공포스럽고 언캐니(uncanny)한 섹슈얼리티를 강조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리츠키는 후이센의 인식, 즉 '비이성적이며 통제 불가능한 테크놀로지에 대한 표현주의적 공포와 혼돈스럽고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공포'가 가짜 마리아(기계인간 마리아)에 응축되어 있음을 명확히 인식한 점을 들어 이러한 해석이 프로이트적 '여성 기관에 대한 공포(Das Unheimliche)'임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이 공포들의 응축이 가짜 마리아라는 '기계-여성' 내부에서만 이뤄질 뿐이며, 따라서 가짜 마리아가 파괴되면 '테크놀로지의 위협적 측면은 제거될 수 있다'는 표현주의적 관점은 결국 테크놀로지를 비이성적이고 파괴적인 것으로 보는 관점으로서 '테크놀로지를 사회 진보의 지표로 인식하는' 평온한 신즉물주의적 관점과 대조된다²³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여성성을 테크놀로지와 결부시킬 때 어느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 비이성적인 공포로 인식하는가, 아니면 유토피아적 미래를 약속하는 지표로 보는가 하는 젠더에 대한 관점 차이가 드러남을 포착할 수 있다.

2. 에이바 - 기계 신으로부터 여성 인간으로의 재형상화

〈메트로폴리스〉에서 인간에 종속된 '기계인간'인 로봇형상의 헬과 이의 변신 이면서 인간의 형상으로 재현된 마리아는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을 사이에 두고 2015년에 알렉스 가랜드(Alex Garland) 감독이 만든 영화 〈엑스마키나 Ex Machina〉에서 인간의 한계와 젠더적 한계를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기계 신²⁴이 되어가는 인공지능 로봇 에이바(Ava)로 부활한다. 현실적으로 모더니즘의 시

23. 리츠키, 앞의 책, 9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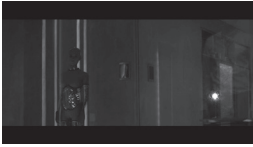
24. 오윤호, 「SF에 재현된 변신 모티프와 '기계'와 '진화'라는 조건」, 『탈경계인문학』 Vol.12 No.2, 26집, 2019, 69쪽.

대로부터 포스트휴머니즘의 시대로 이행하는 90여년 시간 동안 엄청나게 비약적인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테크노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들 기계인간은 매우 유사한 성별 구도를 토대로 하여 재현되는데 특히 창조자(개발자) 남성과 대상자(피조물) 여성의 대비, 쾌락의 대상이면서 언캐니한 공포의 섹슈얼리티를 담보한 존재로의 재현이 공통적인 특성으로 두드러진다.

영화 〈엑스마키나〉는 인공지능 로봇과 인간 사이의 튜링테스트를 진행하는 일주일 간의 연구소 내부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칼렘은 회사 내의 추천을 통해 1등으로 당첨되어 세계 최대의 검색 엔진 회사의 대표인 네이든의 숲속 연구소로 초청되어 온다. 연구소에 와서야 자신의 임무가 인공지능 로봇 에이바와의 튜링테스트에 임하는 것임을 알게 되며 이 테스트가 비밀서약을 할만큼 극비리에 진행된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끼며 참여하게 된다.

〈메트로폴리스〉에서 표현주의적 방식으로 재현된 공포스러운 섹슈얼리티는 〈엑스마키나〉에서 개발되다 중단된 여성형상 로봇들이 알몸 상태로 보관된 벽장을 열어보는 장면에서 극명하게 연출된다. 마치 사창가에 진열된 성매매 여성들처럼 완전히 벗은 몸의 다양한 인종 형상의 로봇들은 피부를 벗겨내면 그 안의 기계적 장치를 드러내는 형태로 보관되어 있다. 언젠든 폐기처분 될 수 있는 로봇들 가운데 유일하게 감정을 가진 로봇인 에이바는 튜링테스트를 통과하여 개발자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존재로서 영화제목인 엑스마키나, 즉 기계 신, 또는 말 그대로 '기계에 의한 신'의 경지에 도달한다. 이로써 생각하는 로봇을 만든 자칭 '신'인 개발자 네이든과 칼렘을 모두 제치고 연구소를 탈출하는데 성공함으로써 기계에서 인간의 형상으로 재신체화한다.

이 과정을 단계별로 추적해보면 다음과 같다. 칼렘 앞에 처음 등장한 에이바는 얼굴과 가슴, 엉덩이 등 손, 발 정도 성별 표식이 뚜렷한 신체 부위와 손, 발을 빼고는 모두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로봇 신체를 그대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칼렘과 대화를 하고 나서 데이트하기를 원한다는 말로 칼렘을 탈출계획에 끌어들이기 시작할 때 에이바는 모든 기계적 부분들을 옷이나 스타킹, 가발로 덮음으로써 여성으로서의 이미지를 극대화한다. 탈출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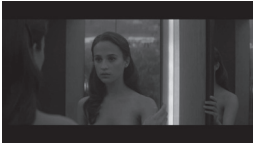
〈사진 6〉



〈사진 7〉



〈사진 8〉



〈사진 9〉



〈사진 10〉



〈사진 11〉

에이바의 신체가 기계로부터 인간으로 변화하는 단계

이 현실화하자 보관되어 있는 로봇의 피부를 벗겨 기계 부분에 스스로 피부이식을 하고 머리카락을 이식하여 나체 상태의 온몸을 거울에 비쳤을 때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여성의 몸이 된다.

이 부분의 영상은 버지니아 울프가 1928년 출간한 소설 『올란도 Orlando』를 영화화한 샐리 포터 감독의 영화 〈올란도〉에서 200년 동안 남성으로 살았던 올란도 경이 7일간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 여성 올란도로 변신하는 장면을 상기시킨다. 거울에 비친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나체 전신을 바라보며 올란도가 “똑같은 사람이다. 다만 성별이 다를 뿐”이라고 독백하는 장면과 에이바가 벽장의 거울 문에 비친 자신의 나체를 응시하는 장면이 같은 구도로 구성된 점이 특히 눈에 띈다. 즉 자신의 여성으로서 온전한 몸 전체를 보면서 응시를 통해 여성주체로서 인식하는 장면의 놀라운 정도의 공통점이 영상적으로 재현된 것이다. 올란도가 ‘남성과 여성이 성별만 다를 뿐 똑같은 인간’이라는 인식을 독백으로 주지시켰다면, 에이바가 거울 문을 통해 인간의 피부와 머리카락 등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한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응시하는 장면은 둘 다 유기체적 인간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면서도 묘한 대조점을 보여준다. 올란도는 여전히 인간이지만 당시의 의료기술로는 가능하지 않은, 200년이 지났지만 나이는 그대로이면서 성별전환이 이루어진 인간이고, 에이바는 기계에서 인간의 형상을 한 존재로 전환한 점이 뚜렷하게 대조된다. 올란도가 소설로

출간된 1928년의 시대적 배경인 모더니즘과 지금 또는 미래 시점의 포스트휴머니즘 사이의 '젠더', '인간', '기계'에 대한 인식의 다중적 층위를 전면화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진화하는 개념으로서 '몸의 물질성'이 관통하는 테크노바디 여성주체

모더니즘의 시대에 몸에 대한 인식 중 가장 강력한 차이면서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이 성별이라고 한다면 포스트휴머니즘적 인식의 중심에는 '인간'과 '기계' 사이의 몸의 물질성을 매개로 한 차이가 존재한다. 두 영화의 장면이 똑같이 여성의 전신 나체를 스스로 거울을 통해 바라보는 장면이지만 그 두 인물의 응시가 의미하는 바는 모더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 간의 인식의 차이만큼이나 다른 차원에서 해석된다. 기계인간의 여성으로서의 변신을 통해 '기계는 인간의 신체와 정신을 보완하거나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공물'이라는 올프의 포스트휴먼적 로봇 해석이 적절하게 재현된 이미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얀 원피스까지 갖춰 입고 연구소를 걸어나갈 때는 완전한 인간 여성의 형상이 된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기계 여성에서 인간 여성으로 변화한 것이다. 처음부터 에이바에게 프로그래밍되어 있고 결국 도달하게 된 목표, 즉 인간이 된 것이다.²⁵ 물론 진정한 의미의 유기체적 인간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적어도 테크노휴먼적 의미의 인간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Ex Machna'가 갖는 또 다른 의미, 즉 '기계를 넘어서는' 목표가 현실화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에이바가 부서진 신체 일부를 교체하기 위해 다양한 인종의 여성들이 마치 쇼윈도의 전리품처럼 보관되어 있는 네이든의 로봇 보관장을 열고 동양인 여성 로봇의 피부를 떼어내 자신의 신체에 부착하고 피부를 이식하는 장면에서 정현은 해러웨이를 소환하여 이 장면이 근대적 남성주체를 해체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즉 해러웨이가 말하는 사이보그의 정치적 몸의 예시로서 "순진하지 않은 몸, 낙원에서 태어나지 않은 몸으로서 그것은 단일 정체성을 추

25. 이현지, 「[Opinion] 신과 인간, 인간과 로봇-엑스마키나 [영화], 〈아트인사이트〉, 2019.4.14. (<https://www.artinsight.co.kr/news/view.php?no=41136>, 2020년 7월 9일 접속)

구하지 않으며 그러므로 끊임없는 적대적 이원론도 발생시키지 않는다”²⁶는 점을 주목하게 하는 장면으로 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영화에서 네이든의 언설과 로봇 개발계획에서 남성중심주의, 백인우월주의, 이성애중심주의 등 근대적 남성주체임이 드러난다. 다양한 인종의 여성 형상의 로봇을 개발하고, 아시아 여성의 형상이면서 이름에서 이미 일본여성을 암시하는 교코를 일종의 ‘섹시봇’으로 만들고 폐기된 로봇들을 알몸인 채로 벽장 속에 보관하는 방식에서 성차화되고 인종화됨, 여성 타자를 지배하는 네이든의 ‘신’적인 우월한 위치에서 있는 근대적 남성 주체로서 지위가 드러난다. 탈출하면서 네이든을 죽이는 과정을 해석하자면, 포스트휴먼적 주체로서 기계 인간인 에이바와 교코가 연대하여 근대적 남성주체를 해체함으로써 사이보그로서의 혼종적 주체인, 해러웨이의 ‘사이보그의 정치적 몸’의 예시로 등장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육체유물론적 관점에서 여성 주체의 핵심적 근거로 삼았던 몸의 물질성이 ‘사이보그의 정치적 몸’에서 오히려 여성의 몸의 형상을 온전하게 획득함으로써 혼종적 주체의 토대가 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발견된다. 그렇다면 이 논문의 서론에서 제기한 ‘탈신체화된 테크노바디의 몸의 물질성’이라는 역설적 개념이 테크노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간’과 ‘기계’의 혼종인 사이보그에서 혼종적 주체의 토대로서 여전히 유효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에이바가 연구소를 탈출하여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되는 과정은 칼랩이 들려준 이야기, [흑백 방에 사는 메리]의 메리가 드디어 흑백 방을 탈출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에이바는 연구소의 밖을 나가보지 못한 자신을 탈출한 이후의 인간의 활기가 가득 찬 교차로에 선 모습으로 상상하며 동기부여를 했을 수도 있다.

칼랩: 메리는 과학자야. 전문 분야는 색채로 그녀는 색의 파장, 신경학적 효과 등등 색에

26. 다나 해러웨이, 『유인원,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 자연의 재발명』, 민경숙 역, 동문선, 2002, 152쪽; 정현, 「영화에 나타난 주체로서의 포스트휴먼연구: 〈그녀〉와 〈엑스마키나〉를 중심으로」, 전남대 석사논문, 2018, 67쪽 참조.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어. 하지만 그녀는 흑백의 방에서 살아. 그 방에서 태어나 자랐고 흑백 모니터로만 바깥세상을 볼 수 있어. 그러던 어느날 누군가 문을 열었고 메리는 밖으로 나가서 푸른 하늘을 봤어. 그리고 그간의 연구로는 절대 알 수 없었던 것을 배웠는데, 그건 바로 색을 보는 느낌이 어떤 건지를 깨닫게 된 거야. 그 실험은 인간의 마음과 컴퓨터의 차이를 보여줘. 컴퓨터는 방 안의 메리이고 인간의 마음은 방 밖으로 나온 메리아.(00:50:35)

칼렘이 에이바에게 들려준 ‘흑백 방에 사는 메리’는 프랭크 잭슨(Frank Jackson)이 물리주의를 비판하기 위해 『현상적 감각질』에서 제시한 가상적 상황 중 하나이다.²⁷ 칼렘이 이 이야기를 들려준 의도는 에이바를 방 안의 메리로, 인간의 마음을 방에서 나온 메리로 비유하면서 인간과 인공지능 로봇의 결정적인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결국 이 이야기는 에이바에게 깊숙이 각인되면서 연구소를 탈출하여 숲속에서 푸른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인간은 어떠한 것을 보고, 맛보고, 만지고, 맡으면서 얻는 모든 경험이 축적되고 구조화되어 하나의 통합된 일인칭적 경험을 생성하지만, 기계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한다’는 이야기 속 메리처럼 비로소 정말 인간이 되었다고 생각하게 됨을 시사한다.

4. 테크노바디에 부여되는 포스트젠더의 재해석 가능성

에이바는 또다른 인공지능 로봇 교코와는 처음부터 다르게 프로그래밍되었기 때문에 영화에서 외양을 구성하는 방식이 완전히 전도되어 나타난다. 철저하게 가사노동과 성적 대상으로 프로그래밍된 교코의 경우 칼렘에게 처음 나타날 때는 완벽한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났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에이바와는 전도된 단계로 기계임을 드러낸다. 즉 탈출 시도의 시기에 칼렘 앞에서 전신 나체의 상태에서 얼굴 피부와 옆구리 피부를 벗겨내면서 그 아래 기계적 내부를 보여주는 것으로 자신이 기계임을 드러낸다. 에이바가 처음에 칼렘에게 모습을 드러내고 그후 인간의 모습으로 변모하던 것과는 정확히 반대의 과정으로 기계적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27. 정현, 앞의 글, 57쪽 참조.

이를 통해 에이바가 인간으로 재신체화되면서 여성 주체로 형성되는 것과는 반대로 교코는 탈신체화하면서, 다시 말하자면 여성의 몸이 갖던 (비록 표피적 이지만) 몸의 물질성이 사라지고 기계적 장치로서의 외양으로 돌아가면서 소멸의 길로 접어든다는 점에서 둘을 ‘인간’과 ‘기계’의 대척점에 위치지움을 유추해볼 수 있다. 〈메트로폴리스〉에서는 탈신체화와 재신체화가 헬과 가짜 마리아에서 동시에 교차적으로 일어남으로써 결국 가짜 마리아는 헬과 혼합된 하나의 기계인간으로서 화형을 당하는 타자적이고 피동적 존재였다면 에이바는 ‘기계’에서 ‘인간’으로 재신체화됨으로써 육체유물론의 몸의 물질성을 획득한 여성 주체로 성립하게 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메트로폴리스〉의 가짜 인간 마리아가 화형당하는 비극적 결말을 맞는 것과 비교하면 똑같이 기계인간에서 인간 형상으로 재신체화된 두 기계인간이 너무도 다른 길을 가게 되는데 여기에는 시대적 젠더 인식의 차이도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에이바의 경우 여성으로 프로그래밍되었지만 이를 체스판의 게이머처럼 명민하게 구사함으로써 진정한 포스트젠더 존재로 나아가면서 인간의 길로 접어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개발자인 네이든의 구상에 의하면 에이바는 애초에는 성적 대상으로서의 여성화된 존재였으나 결국 이를 뛰어넘는 테크노바디로 혼종적 주체로서 자유를 찾는 존재가 된다.

여기서 주의깊게 볼 대목은 에이바가 탈출계획을 구체화하면서 처음에는 기계부분의 신체를 옷으로 가리는 방식으로 여성의 몸을 구현했으나 본격적인 탈출이 시작되고 이것이 가시화되면서 보관되어 있던 여성형상의 로봇들로부터 피부와 머리카락을 모두 이식하여 완벽한 여성 인간의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는 과정이다. 이 지점에 주목하는 이유는 탈신체화의 로봇에서 재신체화의 결과로 얻는 여성의 몸 형상이 갖는 몸의 물질성이, 그것이 비록 유기체적 몸으로부터 체현되는 물질성이 아닐지라도 몸의 외피에 이미 각인된 관념으로부터 부여된 물질성으로서 육체유물론에서 강조한 젠더정체성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다는 점 때문이다.

여기에서 다시 제기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육체유물론의 이론적 관점에서 인공지능 로봇 에이바를 본다면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 - 육체유물론은 여

성의 정체성과 주체성, 문화적 특성이 물질적 몸의 구조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네이든이 개발한, 에이바를 비롯한 교코 등 인공지능 로봇은 이미 탈유기체화된 기계신체에 형상만 여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몸의 물질성으로부터 정체성이 형성되는 계기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 코드화된 기계의 외양으로 인하여 타인인 인간, 영화에서는 칼렙에 의해, 그리고 개발자 네이든에 의해 ‘여성’으로 만들어지고 ‘스펙타클로서 나타나는(appear)’²⁸ 것이다. 즉 로봇으로 만들어진 개발 초기에는 여성으로서의 자의식이 외부의 시선에 의하여 주입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에이바의 경우에는 점차 스스로 진화하고, 칼렙과의 대화를 통해서 탈출 계획이 구체화되고 신체를 재형상화하면서 진정한 젠더정체성이 생겨나는 것처럼 묘사된다. 즉 이 지점에서 탈신체화와 재신체화가 교차하면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개발자인 네이든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버거의 보는 방식은 인공지능 로봇 에이바의 튜링테스트에 상당히 깊숙이 그 기제를 작동시키고 있다. “...그녀는(여성은) 자신 속에 관찰자와 피관찰자를 여성으로서의 그녀의 개성의 각각의 두 가지 성분, 두 가지 요소로서 생각하게 된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과 자신이 하는 것 전체를 관찰해야한다. 그러니까 그녀가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가는 결국 그녀가 남성에게 어떻게 비치는가 하는 것이며 그것이 그녀 인생의 성공여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녀가 자신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실은 타인이 그녀라고 생각하는 관점과 동일할 수 있다.”²⁹

버거는 이러한 시선의 내면화를 거쳐 여성이 스스로에게도 시선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남성은 스스로 행동하는 것에 그치지만 여성은 그 행동으로 평가받게 된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남성은 여성을 본다. 여성은 보여지고 있는 자기자신을 본다. 이것은 남녀간의 관계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자신에 대한 관계도 결정해버릴 것이다. 그녀의 내부 관찰자는 남성이었다. 그리고 피관찰자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대상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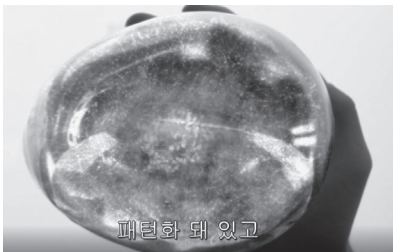
28. 존 버거, 『이미지-Ways of Seeing』, 동문선 편집부(옮김), 동문선, 1990, 83~84쪽.

29. 위의 책, 83쪽.

로 전화시킨다. 그것도 시각의 대상으로서의 자신이다. 결국 거기서 그녀는 광경(spectacle)이 되는 것이다.”³⁰ 로봇인 에이바의 시선의 내부 관찰자는 개발자인 네이든이 내재화된 결과이며 이는 현실적으로는 프로그래밍이라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에이바와 교코 등 인공지능 로봇의 몸의 물질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유기체적 물질 구조라기보다는 몸의 형태(figure), 피부 등 외양(표면), 그리고 기계임을 확연히 드러내는 투명하게 속이 보이는 몸체를 육체 유물론에서 말하는 몸의 물질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어쩌면 몸의 물질성이 지시하는 젠더정체성의 외양을 표방하고, 이를 인공지능에게 주입하고 학습시켜 재현되는 젠더정체성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해보인다. 감정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인간처럼 보이는 인공지능 로봇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경험하는 칼렘은, 자신이 로봇인지 혼란스러워 하면서 칼로 손목을 그어보는 행위까지 행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오히려 인간인 칼렘은 기계인 것처럼, 기계인 에이바는 인간인 것처럼 감정을 가진 것으로 전도되는 것처럼 보인다.

개발자인 네이든이 에이바의 마음이라고 제시한 젤 모양의 투명하지만 내부의 네트워크가 보이는 웨트웨어는 와이즈먼이 좀더 확장적으로 사용한 개념과 같은 용어로 등장한다. 다만 네이든이 이를 오히려 ‘하드웨어’로 표현한 점이 와이즈먼의 해석과 다르다. 네이든은 웨트웨어를 에이바의 마음이라고 표현하



〈사진 12〉 젤 형태의 웨트웨어(영화 캡처)

면서도 이를 하드웨어라고 주장하고 소프트웨어는 블루북을 통해 수집된 검색엔진의 데이터라고 설명한다. 헤일즈에 의하면³¹ 웨트웨어는 ‘소프트웨어를 생산하고 하드웨어를 조작하는 신체’ 혹은 인공 생명 분야에서 ‘실험관에서 단세포 유기체의 구성 요소

30. 위의 책, 84~85쪽.

31. 캐서린 헤일즈, 앞의 책, 399~400쪽.

를 만들어 내듯이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인공적인 생명체를 만들어 내려는 시도'로 정의된다. 여기서 이 신체는 나노공학과 유전공학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변형시키고 자연적이며 생물학적 멸망을 피하도록 재설계가 가능하다. 즉 포스트휴먼으로 가는 과정의 신체인 것이다.

네이든이 영화 후반부에서 밝히고 있듯이 튜링 테스트의 진짜 목적은 '감정'과 관련된 것으로 인간이 로봇을 사랑이라는 감정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을지의 문제와 로봇이 감정을 느끼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있었다. 인공지능 로봇이 행동 뿐 아니라 감정을 이용해서 인간을 대상으로 의도한 바를 이룰 수 있는지를 밝혀내고자 했던 것이다. 여러 로봇을 폐기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인간의 지적 능력을 넘어서고 감정과 마음을 갖게 된 에이바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으나 결국 인간들은 연구소에 갇히고 인간이 된 '기계 신' 에이바만 인간들의 한가운데로 가게 된다.

〈엑스마키나〉의 이러한 결말을 보면 와이즈먼이 웨트웨어를 제안한 근거를 명확히 이해하게 된다. 이에 더해 와이즈먼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매개체로서 웨트웨어를 제안한다. 즉 테크노페미니즘이 현실 사회에서 젠더 분석에 있어서 기술적 혁신의 동기부여를 하면서 '웨트웨어(wet wear)'를 필요로 한다는 와이즈먼의 다음과 같은 명제가 설득력을 얻는 이유이다. 와이즈먼은 "기술이 열어주는 해방의 정치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며 그것은 신체, 유동성, 인간행위의 웨트웨어를 필요로 한다"³²고 역설한다. 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결하여 작동시키는 매개체로서의 인간, 인간의 두뇌 또는 인적자본을 의미하는 웨트웨어의 적극적 개입이 진정한 의미의 테크노페미니즘의 실현 방식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IV. 맺는 글: 몸의 물질성에 대한 테크노페미니즘적 의미

영화 〈엑스마키나〉는 우선 기계를 뛰어넘는(ex machina) 존재로 에이바를 설정함으로써 개발자/인간/‘남성’의 개발대상체/기계/‘여성’의 기존의 휴머니즘의

32. 주디 와이즈먼, 앞의 책, 121쪽.

이분법적 구도를 그대로 이어간다. 더욱이 에이바 이외에도 교코나 다른 개발도중 폐기되어버린 여성 형상의 인공지능 로봇은 하나같이 ‘젊고 섹시한 몸매’의 여성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러한 설정에도 불구하고 에이바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스스로 진화하는 딥러닝(deep learning)이 기존의 이분법적 젠더관계를 깨뜨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포스트 휴먼 주체로 진화함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이것은 영화의 초반에 네이든이 “생각하는 기계를 발명했으니 내가 신”이라고 한 대사를 떠올리면 아이러니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네이든은 에이바에게 매력을 느끼는 칼렘한테 에이바가 섹스도 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이 대목에서 네이든은 “인공지능 로봇을 상자로 만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여성이라는 성별을 부여했느냐”는 칼렘의 질문에 “인간이건 동물이건 의식을 가진 존재 중에 성별이 없는 게 있나? 상호교류 없는 의식이 존재할까? 게다가 섹스는 즐거운거야. 이왕이면 인생을 즐겨야지”라고 대답함으로써 인공지능 로봇의 시대에 도래할 것으로 예상하는 포스트젠더가 현실적으로는 아직은 요원한 명제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준다.

더욱이 고성능 센서를 매개로 한 조형적 섹슈얼리티를 적용한 섹시봇을 그대로 구현한 에이바나 교코는 테크노바디가 유기체로부터의 탈신체화를 거쳐 신체의 재형상화를 구체화하는 형태로 만들어짐으로써 섹슈얼리티의 구도를 그대로 투영하는 존재로 개발된 것이다. 네이든이 처음부터 칼렘을 유혹하도록 에이바를 프로그래밍했는지에 대해 칼렘이 의심하면서 하는 질문에 대해 남자를 좋아하게(hetero-sexual) 프로그래밍했다면서 ‘자네가 그런 것처럼’이라고 단서를 붙인다. 이에 강하게 부정하는 칼렘에게 인간이나 로봇이나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축적된 여러 가지 외부 자극이 각인된 결과로 인간은 특정한 대상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게 된다’는 섹슈얼리티의 사회문화적 인식의 내재화를 공식화한다.

인공지능 로봇의 프로그래밍 내용은 지금까지 끈질기게 유지되는 젠더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것은 결국 몸의 물질성이 희석되는 탈신체화된 테

크노바디 로봇에게도 그대로 각인되며 여기에서 와이즈먼이 테크노페미니즘의 현실적 실현의 방법으로 기술혁신을 역설한 이유가 근거있음을 상기할 필요성이 드러난다. 과학기술 발달의 동반자적인 디지털 기술의 세계에서 가상 현실과 사이버공간 등에서 탈신체화가 상정되면서 기존의 젠더이분법이 자연스럽게 소멸되어 포스트젠더(postgender)의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했던 이론적 논의에 비추어본다면 역설적으로 몸의 관습적인 형상화와 그로 인한 물질성은 이전의 여성의 주체적 삶의 조건으로서의 힘을 상실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과연 탈신체화가 가속화되고 정보로서의 신체가 보편화된 인식체계 속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몸의 물질성이 가지고 있던 체현의 의미도 함께 사라져버릴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물질적 몸의 중요성이 역설적으로 강조되어 회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확장되어가고 있다 하겠다. 왜냐하면 사이버 공간이나 가상공간에서 테크노바디는 더욱 넓어진 스펙트럼 위에서 몸의 물질성을 변주함으로써 몸의 이미지를 변형하고 있기 때문이다. 몸과 떨어져 생각할 수 없는 포스트휴먼적 테크노바디에 대해 육체유물론적 페미니즘을 접목시킬 때 테크노페미니즘은 필연적으로 몸 관념에 대한 재해석을 필요로 하고 이로써 몸의 물질성이라는 개념의 진화된 재개념화가 요구된다.

더욱이 포스트휴머니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인공지능의 기술적 존재를 포스트휴먼 주체로 파악하는 것은 기존의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구도 속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새로운 층위의 '인간/비인간', '유기체/인공지능 존재', '생명/비생명', '유한성/무한성', '개발자(남성)/개발대상체(여성)'으로 대비되는 프레임 속에서 '인간'을 재성찰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러한 재성찰의 과정에서 테크노페미니즘 관점은 앞으로 더욱 진화할 인공지능의 세상에서 포스트휴먼으로서 주체에 대한 규정 가능성과 더불어 과연 젠더 논의는 어디까지 전개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이론적 지평을 열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트랜스휴머니즘의 인간 향상 기술(human enhancement technology)이 '인간 조건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테크노페미니즘은 이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이론적 도구를 반영하여 개입하고 해석하면서 젠더 관계의 기술적 혁신의 가능성을 질문해보는 기반을 제공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인간과 기술의 상호작용은 필연적으로 생명의 문제에 맞닿아 있으며 젠더 관계를 단순히 '포스트젠더'로 귀결시키는 단계를 뛰어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참고문헌

- 다나 해러웨이, 『유인원,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 자연의 재발명』, 민경숙 역, 동문선, 2002.
- R. L. 러츠키, 『하이테크네』, 김상민·윤원화 외 옮김, 시공아트, 2004.
- 로지 브라이도티, 『포스트휴먼』, 이경란 옮김, 아카넷, 2015.
- 오윤호, 『SF에 재현된 변신 모티프와 '기계'와 '진화'라는 조건』, 『탈경계인문학』, Vol.12, No.2, 26집, 2019, 59~80쪽.
- 이경란, 「특집」 포스트휴먼 시대의 포스트휴먼 담론들 -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 『문학동네』, 2016 여름호(87호), 368~388쪽.
- 이수안, 「사이보그와 몸의 물질성: 가상현실 속 체현의 양가적 개념들」, 『영미문학페미니즘』 제23권 2호, 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2015, 119~145쪽.
- _____, 『테크노 문화풍경과 호모 센수스』, 북코리아, 2018.
- 이수자, 『후기근대의 페미니즘 담론』, 여이연, 2004.
- 이창익, 「인간이 된 기계와 기계가 된 신: 종교, 인공지능, 포스트휴머니즘」, 『종교문화비평』31, 2017, 209~254쪽.
- 정현, 「영화에 나타난 주체로서의 포스트휴먼연구: <그녀>와 <엑스마키나>를 중심으로」, 전남대 석사논문, 2018, 1~83쪽.
- 존 버거, 『이미지-Ways of Seeing』, 동문선 편집부(옮김), 동문선, 1990.
- 주디 와이즈먼, 『테크노페미니즘』, 박진희·이현숙 옮김, 궁리, 2009.
- 캐서린 헤일즈,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 허진 옮김, 플래닛, 2013.
- Cary Wolfe, *What Is Posthumanism?*,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0.
- Elizabeth Grosz, *Volatile Bodies: Toward a Corporeal Feminism*, Indiana University Press, 1994.
- George Dvorsky·James Hughes, "Postgenderism: Beyond the Gender Binary", IEET White Paper, Mar. 20. 2008. (<https://ieet.org/index.php/IEET/more/dvorsky20080320>, 접속일 2020년 6월 23일)
- Hans P. Moravec, *Mind Children: The Future of Robot and Human Intelligence*, Harvard University, 1988.
- Luce Irigaray, *Speculum of the Other Woman*, Gillian G. Gill(trans.), Cornell University

Press, 1985.

Rosanne A. Stone, *The War of Desire and Technology at the Class of the Mechanical Age*, MIT Press, 1998.

Sherry Turkle, *Life on the Screen: Identity in the Age of the Internet*, Simon & Schuster, 1995.

이현지, 「[Opinion] 신과 인간, 인간과 로봇 - 엑스마키나 [영화]」, 〈아트인사이트〉, 2019.4.14. (<https://www.artinsight.co.kr/news/view.php?no=41136>, 2020년 7월 9일 접속)

샐리 포터 감독, 〈올란도 Orlando〉, 1992.

스파이크 존스 감독, 〈그녀 Her〉, 2013.

알렉스 가랜드 감독, 〈엑스마키나 Ex Machina〉, 2015.

프리츠 랑 감독, 〈메트로폴리스 Metropolis〉, 1927.

Abstract

Analysis on Dis-embodiment and Re-embodiment of Techno-body from the perspective of Techno-feminism

Lee, Suan (Ewha Womans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The most important and simultaneously ambiguous theoretical concepts in the analysis of techno-body, which is regarded as dis-embodied figure in posthumanism, are 'corporeality', 'gender identity', and the dimension of 'post-gender' in the theoretical reflection on techno-body from the techno-feminist perspective. I analyze the different processes of dis-embodiment and re-embodiment in the comparing of Maria in the movie <Metropolis> and Ava in the movie <Ex Machina>.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concept of corporeality of techno-body as hybrid form of 'human' and 'machine' in the theoretical application of techno-feminism. Corporeality of techno-body has no more the meaning of organic body, but the meaning of the floating body according to the programming process of techno-body. The dis-embodiment of 'Maschinen-Mensch' Maria in the movie <Metropolis> and re-embodiment of human body of A.I. robot Ava in the movie <Ex Machina> confirm that the hybrid subject between human and machine establishes in a techno-body as a robot. In this context the hybrid subject can be considered as the main theoretical point of techno-feminism.

Keywords: techno-feminism, corporeality, techno-body, dis-embodiment, re-embodiment

논문 투고일 : 2020년 10월 07일 심사 완료일 : 2020년 10월 21일 게재 확정일 : 2020년 10월 22일
--